퀸퀴니얼 총회 개요

By Sharon Winzeler, OFS
Communications Committee Chair

Q 로고 –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

Jane DeRose-Bamman, OFS
국가형제회 회장

상처에서 영광으로: 성 프란치스코의 선종

기조 발표: Br. Bill Short, OFM

현존의 영성: 돌봄에 관해 야코바 부인이 가르쳐 주는 것

기조 발표: Dr. Darleen Pryds

평화 건설을 위한 희년 기도

기조 발표: Fr. Wayne Hellman, OFM Conv.

小형제회의 힘

국가양성위원회

5 주년 총회 (퀸퀘니얼 대회)에 함께한 귀빈들

글: 메리 프랜시스 차스키(Mary Frances Charsky, OFS)
재속 프란치스코회 국제 평의원(International Councilor)

퀸퀴니얼 총회 개요

By Sharon Winzeler, OFS
Communications Committee Chair

미국 전역에서 온 500 명 이상의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원들이 7 월 29 일부터 8 월 1 일까지 켄터키주 렉싱턴에서 열린 제 21 차 퀸퀴니얼 총회에 모였습니다. 국가형제회 봉사자 Jane DeRose-Bamman OFS 는 참석자들을 환영하며, '성 프란치스코의 부활절: 불꽃을 다시 지피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여러 날의 기도, 교제, 그리고 재충전의 시간을 소개했습니다.

총회는 렉싱턴 교구의 주교인 John Stowe, OFM Conv. 주교님이 성찬례를 집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강론에서 Stowe 주교님은 모인 사람들에게 희망의 증인으로서 자신들의 프란치스칸 성소를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분열된 나라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공격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으며, 우리는 종종 서로를 최악의 모습으로 보게 돼요." 그러한 현실 속에서 그는 재속 프란치스코회원들에게 그들의 소명을 상기시켰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빛나는 등불이 되어 복음을 살아가도록 서약했습니다."

모임의 즐거움을 되새기며 Stowe 주교님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형제회 안에서 모여 평화의 선교사이자 복음의 전령으로 가족을 이루다니, 참 아름답습니다." 성서를 바탕으로, Stowe 주교님은 낙담이나 자기연민이 우리의 삶을 정의하게 두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는 '믿음을 사는 것은 변함없는 기쁨을 퍼뜨리고 우리를 더 큰 무언가에 헌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Stowe 주교님은 마르타, 마리아, 그리고 그들의 형제 나자로의 복음 이야기를 참고했어요. 자매들은 나자로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겪었지만 여전히 예수님께 믿음을 두었어요. 그들의 본보기는 제자도의 두 가지 측면도 보여줍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에서 힘을 얻고, 마르타는 봉사를 통해 믿음을 실천했습니다. 프란치스코회는 둘 다 필요합니다. 기도는 그들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깊게 하고, 그 관계는 그들을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 다른 사람들을 환영하며, 정의를 위해 일하고, 평화를 세우도록 나가게 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부활을 선포합시다."

매일 하루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연사들의 기조 연설로 시작했어요. 참석자들은 소그룹이나 '작은 동아리'로 모여 각 발표자가 쓴 질문을 바탕으로 발표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점심 식사 후에는 모두 다시 모여 기조 연설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퀸퀴니얼 행사를 가족 모임에 비유하며, 전 세계에서 온 프란치스코회 회원들은 행사 종료 후 제출한 평가에서 자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경험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은 모임이 큰 전국 행사도 개인적으로 느껴지게 도와준다고 말했어요. 참석자들은 다른 형제회에서의 생활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을 좋게 생각했어요. 어떤 처음 참가한 사람은 작은 형제회들이 의미 있는 대화 때문에 퀸퀴니얼 모임에서 가장 좋았다고 썼어요.

참석자들은 평가에서 프란치스칸 형제자매들과 다시 만나고, 전국 각지 사람들을 만나며, 새로운 우정을 쌓는 기쁨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기조 연설들도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패널 토론과 복음을 사는 다양한 관점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좋게 평가했습니다.

기도와 예배가 모임에 영적인 중심을 줬습니다. 참석자들은 매일 미사에 참석할 수 있는 것, 금요일 성시간, 그리고 여러 지역의 프란치스칸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자신들의 영성을 깊게 하고 새롭게 해주는 경험이라고 칭찬했어요. 한 참석자는 퀸퀴니얼 행사에 대해 '긍정적인 영적 에너지가 있다'고 말했고, 다른 참석자는 '정말 멋진 경험'이라고 표현했어요.

행사는 노래, 춤, 마술 쇼가 포함된 장기자랑으로 즐겁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기분 좋게 자리를 떠났고, 한 사람은 공연이 끝난 뒤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멋진 경험이었어요. 와서 다행이에요.”

Q 로고 –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

Jane DeRose-Bamman, OFS
국가형제회 회장

저는 Quinquennial(이하 Q)에 참석할 때마다 제 신앙이 새로워지고 활력을 얻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다섯 차례 참석했는데, 미국 전역에서 모인 회원들을 만나는 일이 참 즐거웠습니다. Q 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지금 알고 지내는 많은 형제자매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처음 참석했던 2002 년 뉴올리언스 Q 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곳에서 제가 자란 미시간주 출신의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미시간주 Fowlerville 에 사는 분으로, 어린 시절 제 어머니와 친구 사이였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나이가 들어 가톨릭으로 개종하셨고, 마침내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원이 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세상은 참 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6 년에는 Q 를 주최한 세인트루이스 지역 형제회의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중 Howard Schroeder 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미술 활동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Q 준비위원회가 주제를 정한 뒤 로고를 제작할 사람을 찾고 있을 때, 문득 Howard 형제가 생각나서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국가형제회 회장 전화를 받으신다면 어떤 기분일가요? 먼저 제 소개를 다시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렸던 Q 에서 형제님을 뵈었습니다." 그런 다음 Howard 형제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그분의 배경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어 다음 Q 에 사용할 로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주제가 '성 프란치스코의 부활절'이라고 알려 주면서 로고 디자인을 맡아 줄 수 있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하워드 형제는 이 일을 두고 기도하며 깊이생각하였고, 몇 달 뒤 마침내 로고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하워드 형제가 직접 설명한 로고의 의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원과 영원이 만나는 길목에서,
자매인 죽음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끕니다.
당신 자신을 남김없이 내어 주신 그분께서는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온전히 받아 주시고,
우리는 영원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러나 영원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구비오의 늑대가 변화되었듯,
복음은 우리 본성 자체를 변화시켜
더 높은 삶의 영역으로 이끕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가두었던 번데기에서 벗어나
눈부신 색채의 향연 속으로 날개를 펼치고
하늘 높이 날아오릅니다.
우리의 날갯짓 하나하나가
다른 이들의 삶에 파문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단단한 알껍데기를 깨고 나와
더 깊은 깨달음을 얻으며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연민으로 다른 이들도 함께 들어 올립니다.
씨앗에서 시작된 우리는
푸르른 생명으로 자라나
끊임없이 가지를 뻗어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며
평화를 전합니다.
달이 태양과 같은 크기로 보이듯,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현혹될 때
이 세상의 삶이 우리와 한없이 무한하신 성자 사이를
가로막을 수도 있음을 깨닫습니다.
마침내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지고
삶을 가로막던 모든 장애물이 사라집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외치십니다.
"나오너라!"

이 로고는 아름다울 뿐 아니라 우리를 깊은 기도로 이끕니다. 로고를 이루는 각각의 요소에 담긴 의미는 우리의 기도를 더욱 깊고 풍요롭게 해 줍니다. 이 로고를 기도의 도구로 삼아, 성령께서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형제회 회장의 부탁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라고 응답해 준 Howard 형제에게 감사드리며,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립니다.

하워드 형제의 다른 작품들은 페이스북 페이지 *Franciscan Psalms*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조 발표

By Sharon Winzeler, OFS
Communications Committee Chair

상처에서 영광으로: 성 프란치스코의 선종

기조 발표: Br. Bill Short, OFM

Bill Short 형제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트란시투스(선종)를 고통과 죽음을 지나 영광으로 나아가는 여정으로 설명했습니다.

형제는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1224 년에 그리스도의 수난에 관한 복음의 말씀들을 거듭 거듭 펼쳐 읽으시면서 피정하며 기도했던 라 베르나 산에서 시작해서 이야기를 풀어 가셨습니다. 그분의 설명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성인은 시련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았지만, 이어서 나타난 십자가에 못 박힌 세라핌의 환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고심했다고 합니다.

그 환시가 있은 뒤 어느 시점에 그리스도의 상처 자국이 프란치스코 성인의 몸에 나타났습니다. 빌 형제는 이 시간적 간격에 주목했습니다. 후대의 미술 작품과 기록에서는 환시와 오상(五傷)이 동시에 일어난 것처럼 묘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Bill 형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성인은 이 상처 자국을 매우 조심스럽게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과 가장 헌신적인 추종자들조차 오랫동안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레오 형제가 라베르나 산에서 프란치스코 성인께 받은 양피지에 남기신 기록은 그 증거 중 하나입니다. 다른 기록에는 프란치스코 성인 생전에 상처 자국을 얼핏 보았거나 이를 짐작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세한 묘사는 성인의 선종 이후 사람들이 그의 몸을 살펴보고 공경하면서 비로소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남은 생애에는 병고와 고통이 점점 깊어졌고, 나날이 커져가는 수도회의 방향에 대한 염려로 채워졌습니다.

1226 년 10 월, 죽음이 가까워지자 프란치스코 성인은 아시시의 주교관을 떠나 형제들이 자유롭게 노래할 수 있는 포르치운쿨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피조물의 찬가에 죽음의 자매를 환영하는 구절을 더하는 동안 형제들이 노래하며 기뻐하자, 아시시 사람들은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성인이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지요. 죄와 다가오는 죽음과 심판을 진지하게 성찰해야지, 주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를 때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Bill 형제는 프란치스코 성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합니다. "이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싶지는 않구나. 나를 데려가 다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마음껏 노래하고 찬미할 수 있는 포르치운쿨라로 나를 데려가 다오. 나는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맨땅에 눕게 해 달라고 청했고, "파스카 축제 엿새 전"으로 시작하는 복음 말씀을 듣고, 형제들과 빵을 나누며, 그 자리에 있는 이들과 함께하지 못한 이들 모두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는 10 월 3 일 해가 진 뒤 선종하셨습니다.

이 장면에서 가장 감동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은 로마에서 온 프란치스코 성인의 친구이자 미망인인 야코바 부인(Lady Jacoba)이었습니다. 첼라노의 토마스가 남긴 후대의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천과 초, 그리고 프란치스코 성인 좋아하던 아몬드 과자를 가지고 도착했다고 합니다. 당시 규정상 여성은 형제들의 거처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지만, 프란치스코 성인은 그녀를 "야코바 형제"라 부르며 맞아들였습니다. 그가 선종한 뒤 야코바 부인은 그의 몸을 끌어안았고, 그 기록에 따르면 형제들에게 감추어 두었던 상처를 다른 이들도 볼 수 있게 하라고 간청했다고 합니다.

장례 행렬은 산 다미아노에 들러 클라라 성녀와 자매들이 프란치스코 성인을 보고 공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치유에 관한 이야기, 그의 상처를 본 이들의 증언, 아시시 사람들의 신심은 프란치스코 성인의 명성을 더욱 높여주었습니다. 교황 그레고리오 9 세는 성인이 선종한 지 2 년도 채 되지 않은 1228 년 7 월 16 일 그를 시성하셨습니다.

이어 Bill 형제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장지를 둘러싸고 생겨난 이야기들로 화제를 돌리셨습니다. 1230 년, 성인의 시신은 새로운 대성당으로 은밀히 옮겨졌는데, 이는 엘리아 형제가 유물을 탐내는 군중들로부터 시신이 도둑맞거나 훼손될까 두려워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수 세기 동안 정확한 안장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후대의 이야기에는 교황들이 프란치스코의 유해가 기적적으로 보존된 것을 발견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만, 빌 형제는 이를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전설로 다루셨습니다. 무덤은 1818 년 발굴 조사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르고, 죽음이 하느님과 함께하는 생명으로 열리는 문임을 신뢰했던 프란치스코 성인의 모범입니다.

기조 발표

By Sharon Winzeler, OFS
Communications Committee Chair

현존의 영성: 돌봄에 관해 야코바 부인이 가르쳐 주는 것

기조 발표: Dr. Darleen Pryds

누가 우리의 프란치스코 전통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에서 누구의 삶이 빠져 있을까요?

Darleen Pryds 박사는 2026 년 재속 프란치스코회 5 년 주기 총회에서 "현존의 영성: 야코바 부인과 프란치스코 전통 안의 돌봄과 돌봄 받기"라는 제목으로 발표하며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녀는 야코바 부인의 우정과 돌봄을 통해 프란치스코 성인의 마지막 날들을 바라보도록 청중을 초대했습니다.

야코바 부인은 프란치스코 성인이 좋아하던 아몬드 과자를 가져온 인물로 자주 기억됩니다. 그러나 Pryds 박사는 그 과자 너머를 보자고 권하셨습니다. 재산과 영향력을 지닌 로마의 미망인이었던 야코바는 프란치스코 성인과 형제들을 환대하고 그들의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Pryds 박사에 따르면, 그녀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돌보는 일에 성인의 곁에서 함께 봉사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1212 년경 로마에서 그녀는 프란치스코 성인을 만났을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과 형제들은 이곳저곳을 다니며 설교하고 있었고, 야코바는 복음을 전하며 돌아다니는 저 꾀죄죄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큰 호기심을 갖게 되어 그들을 한두번이 아니라 여러번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녀는 병원을 세웠고, 그 병원에서 프란치스코 성인과 함께 봉사했습니다."라고 Pryds 박사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어 말합니다. "특히 깊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누군가와 함께 사목하고 봉사해 본 적이 있다면, 두 사람은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은 사람들 사이에 유대를 만들어 줍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마지막 날들에 관한 기록에 따르면, 야코바는 그를 위로하고 장례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천과 초, 여러 물품을 가지고 로마에서 아시시까지 왔습니다. 두 사람의 유대는 우정과 함께한 봉사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성인의 죽음을 다룬 가장 널리 알려진 기록들 가운데 야코바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Pryds 박사는 이야기가 기록자의 관점과 청중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초기 기록 중 일부는 프란치스코 곁에 모인 형제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다른 기록에는 야코바가 함께 등장합니다. 그녀를 기억해 낼 때 비로소 우리는 프란치스칸 가족의 더 온전한 모습과 평신도들, 특히 돌봄이라는 일상의 수고가 기록조차 되지 않았던 수많은 여성들의 공헌을 온전히 볼 수 있게 됩니다.

돌봄은 받는 사람에게도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호스피스 돌봄 봉사를 오랫동안 해 온 Pryds 박사는 도움을 받아들이는 일이 얼마나 자신을 취약하게 만드는지 역설했습니다. 평생 다른 이들을 섬긴 프란치스코 성인도 생의 마지막에는 친구들의 현존과 돌봄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모범은 우리에게 세심하게 돌봄을 베풀고, 열린 마음으로 돌봄을 받아들이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발표 중 감동적인 대목에서 Pryds 박사는 야코바가 프란치스코 성인을 위로하고 그의 숨소리에 귀 기울이며, 선종 후 그의 몸을 수습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문서로 입증된 기록이 아니라, 당시 돌봄이 어떤 모습이었을지를 성찰하기 위한 상상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존한다는 것은 귀 기울여 듣고, 상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차리며,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곁에 머물러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셨습니다.

"무언가를 고치려 할 때 우리는 세상을 망가진 곳으로 바라보지만, 섬길 때에는 세상을 온전한 곳으로 바라봅니다."라고 Pryds 박사는 말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선종 800 주년을 기념하며, Pryds 박사는 우리가 더 온전한 이야기를 전하고 오늘날 서로에게 어떻게 현존할 수 있을지 물어보도록 초대합니다. 돌보고 돌봄을 받는 일은 일상적인 삶의 일부입니다. 프란치스칸 전통 안에서 이러한 일들은 사랑과 상호 신뢰, 은총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조 발표

By Sharon Winzeler, OFS
Communications Committee Chair

평화 건설을 위한 희년 기도

기조 발표: Fr. Wayne Hellman, OFM Conv.

"주님께서 그대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사람들에게 건넸던 이 인사로 Wayne Hellman 신부님은 발표를 시작했고, 프란치스코의 핵심 메시지 가운데 하나인 성 프란치스코 희년 기도에 관한 발표를 마칠 때에도 이 인사로 강연을 맺었습니다.

그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선종 800 주년을 기념하여 교황 레오 14 세가 작성한 희년 기도를 소개했습니다. Wayne 신부님은 단순히 기도를 낭송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 의미를 성찰하며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도록 이 기도가 우리를 이끌게 하자고 권했습니다.

"저는 이 기도 안에 성 프란치스코의 목소리와 교황 레오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라고 Wayne 신부님은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면서 세 번째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 목소리는 누구의 것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의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칙이 이 기도 안에 담겨 있습니다. 교황 레오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의미를 함께 풀어 보고자 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신부님은 기도를 네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첫 부분은 평화로운 사람으로서 '죽음의 자매'를 맞이한 프란치스코 성인을 떠올리게 합니다. 프란치스코가 죽음을 자매라고 부른 것은 모든 피조물과 깊은 형제적 유대를 느꼈기 때문이지요.

"프란치스코 성인은 왜 죽음을 자매라고 불렀을까요? 죽음의 자매도 우리 가족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화 안에서 살았고, 죽음 안에서도 평화는 그의 자매였습니다."라고 신부님은 설명했습니다.

Wayne 신부는 죽음을 평화롭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다른 이들을 형제 자매로 바라보는 삶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청중에게 마음을 찌르는 질문을 던졌죠. '내게 여전히 낯선 사람으로 남아 있는 이는 누구인가?'

이어서 기도는 산 다미아노의 십자가를 향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처음에 교회를 재건하라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건물을 수리하라는 뜻으로 이해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부르심이 훨씬 더 넓은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Wayne 신부는 화해를 위해 프란치스코 성인은 자기 내면의 벽과도 마주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병 환자와의 만남은 그가 한때 쓴 맛으로 느꼈던 것을 은총의 경험으로 바꾸게 하였습니다. 평화는 마음에서 시작되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으로 드러난다고 신부님은 설명했습니다.

기도의 세 번째 부분은 프란치스코 성인이 전쟁의 경계를 넘어 그리스도교인들의 적으로 여겨지던 이집트 술탄을 한 인간으로 만나러 간 일을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은 더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긴장된 가족 관계를 돌아보고 개선하려 노력하거나, 생각이 다른 이웃과 차분히 대화하거나, 프란치스코 성인이 술탄에게 다가갔듯 다른 사람들이 멀리하는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계를 넘어서는 일은 곁에 머물기, 경청,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기도의 마지막 부분은 프란치스코 성인에게서 우리 자신에게로 시선을 돌립니다. Wayne 신부님은 '무장하지 않고, 다른 이의 무장을 풀게 하는' 평화의 일꾼이 되라는 부르심을 회원들에게 끊임없이 평화를 구축하고 대화를 통해 일치를 구하도록 요청하는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칙 제 19 조와 연결하셨습니다. 그는 또한 고통 속에서도 영혼과 육신의 평화를 지키는 평화의 사람들을 말하는 프란치스코의 권고 15 번을 언급했습니다.

Wayne 신부님은 기도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아시시의 주교와 시장이 서로 다투고 있을 때 프란치스코 성인이 형제들에게 *피조물의 찬가* 한 구절을 부르게 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 노래는 화해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쟁터를 가로지를 일이 없을지 모르지만, 누구나 평화의 말을 선택하고 누군가에게 다가가며 벽을 허무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 선종 800 주년을 기억하는 이때, 희년 기도는 묵상과 함께 실천해야 할 사명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Wayne 신부는 기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여 마침내 행동이 되게 하라고 초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에게 바치는 교황 레오의 기도

저의 형제이신 성 프란치스코님,
당신은 팔백 년 전 평화의 사람이 되어
누이인 죽음을 맞이하러 가셨으니,
주님 앞에서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당신은 성 다미아노 십자가에서
참된 평화를 알아보셨으니
모든 장벽을 허무는 화해의 샘을
주님 안에서 찾는 법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소서.

당신은 무장하지 않은 채로
전쟁과 몰이해의 경계를 가로지르셨으니,
세상이 담을 쌓은 그 자리에
다리를 놓는 용기를 저희에게 주소서.

갈등과 분열로 고통받는 이 시대에
저희가 평화를 일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무장하지 않으며 무장을 해제시키는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평화의 증거자가
되도록 전구해 주소서.
아멘.

小형제회의 힘

국가양성위원회

Quinquennial Congress (“Q”)의 평가를 통해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바로 ‘小형제회 (Little Fraternities)’가 이번 행사의 가장 훌륭한 부분 중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소그룹 모임을 통해 전국에서 온 재속 프란치스칸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속 프란치스칸으로서 이러한 성공적인 경험을 초기와 영속적 양성에서 재현할 수 있습니다.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 전달(Inform), 성찰(Process), 나눔(Share)’ - 체계적인 3 단계 진행 방식을 활용한다면, 형제적 대화의 진정한 힘을 발휘하여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평생에 걸친 회개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1. 전달: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자료를 접하고 그 내용을 살펴봅니다. 여기에는 회칙, 성경 말씀이 포함됩니다. 이때 처음에 제공하는 설명이나 낭독은 너무 길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 에서 진행된 기조 강연들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참가자들이 깊이 성찰하도록 의도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Bill Short 수사님의 강연은 이야기와 상징을 통해 참가자들이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선종과 하느님께로의 전이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도록 초대했습니다. Darleen Pryds 박사의 기조 강연은 주의 깊고 관계 중심적인 경청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소그룹 대화에 꼭 필요한 태도입니다. Wayne Hellmann 수사님은 희년을 위한 레오 교황님의 기도에 관해 발표하면서, 프란치스칸들이 희년 기도문 안에 담긴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초대했습니다.

이러한 강연들은 대화를 ‘끝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대화를 열어 주었습니다. 강연은 성찰과 침묵, 나눔을 통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씨앗들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소형제회 모임은 그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2. 성찰: 우리는 자주 발표를 듣거나 글을 읽은 직후 곧바로 그 내용에 관한 생각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서둘러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대개 피상적인 응답에 그치게 됩니다. Q 에서는 소형제회 모임의 토론이 시작되기 전에 휴식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잠시 긴장을 풀고 마음을 가라앉히며, 성령께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가졌습니다.

3. 나눔: Q 에서 소형제회 모임이 특별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참가자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속 깊은 곳까지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들은 ‘상호 초대’ 방식을 활용하여 대화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중간에 끊거나, 틀렸다고 지적하거나, 논쟁하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꺼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Q 의 소그룹들이 안전한 나눔의 자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토론 질문들은 논쟁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숙과 성장을 촉진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기조 강연자들은 소형제회 모임에서 함께 나눌 세 가지 질문을 제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질문들은 열린 질문으로서 깊은 성찰을 이끌어 내고, 기조 강연의 주제에 충실하며, 개인과 공동체의 회개와 회심을 지향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예시를 참조하십시오.)

소형제회 모임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통해 우리는 양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침묵 가운데 성령의 목소리와 형제자매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했습니다. 대화를 통해 주제를 깊이 성찰하고, 그 내용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속 프란치스칸 양성입니다!

Q 자료 페이지에 제공된 자료를 통해 각 지구 형제회형제와 단위 형제회가 수개월에 걸쳐 영속적 양성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자료와 방법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https://www.secularfranciscansusa.org/updates-from-the-q-july-29th-through-august-1st-2026/

발췌 예시 질문
(다른 질문은 Q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Bro. Bill Short, OFM: 프란치스코는 이 세상을 떠나 주님께로 돌아가면서, 수많은 따르는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살아가는 사명을 맡겼습니다. 오늘날 복음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영감을 주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Dr. Darlene Pryds: 여러분은 스스로를 돌봄을 받는 사람이라고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돌봄을 받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은총과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프란치스칸 영성은 여러분이 돌봄을 받는 데 어떤 도움을 줍니까?

Fr. Wayne Hellman, OFM Conv.: 재속 프란치스칸은 어떻게 "무장하지 않으며 무장을 해제시키는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5 주년 총회 (퀸퀘니얼 대회)에 함께한 귀빈들

글: 메리 프랜시스 차스키(Mary Frances Charsky, OFS)
재속 프란치스코회 국제 평의원(International Councilor)

미국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제 21 회 5 주년 총회(Quinquennial) 대회는 여러 귀빈의 참석으로 더욱 풍성하게 빛났습니다. 이분들의 참여는 우리가 지역의 단위 형제회에 속해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전 세계에 걸친 하나의 프란치스코 가족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번 총회를 빛내주신 귀한 손님으로 함께한 분들은 총봉사자 티보르 카우저(Tibor Kauser, OFS), 부 총봉사자 메리 스트로나크(Mary Stronach, OFS), 꼰벤뚜알 프란치스코회 사제 스테판 아카트레이네이(Stefan Acatrinei, OFM Conv.), 아나 마리아 라포 라오스(Ana Maria Raffo Laos, OFS), 그리고 주미 교황대사 가브리엘레 차차 대주교(Archbishop Gabriele Caccia)였습니다. 이분들의 참석은 켄터키주 렉싱턴에서 열린 이번 모임에 함께한 모든 이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헝가리, 루마니아, 페루, 이탈리아에서 온 손님들과 함께한 이번 5 주년 총회는 우리회의 국제적 면모를 잘 드러내 주었습니다. 또한 성 프란치스코와 성녀 클라라에서 영감을 받아 복음 중심의 같은 성소를 살아가는 형제자매들이 전 세계 곳곳에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서로 다른 국가와 문화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회칙과 카리스마(영성), 그리고 형제애의 정신 안에서 하나로 일치되어 있습니다.

총회 기간 내내 참가자들은 귀빈들과 교류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미사에 참례하고, 기조 연설을 듣고, 패널 토론에 참여는 물론, 식사를 함께 나누거나 복도에서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모든 일상적인 순간에 우리는 하나의 프란치스칸 가족이 되는 기쁨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서로에게서 배우며, 우리가 함께 받은 공통의 성소를 축하했습니다. 많은 참가자가 이야기했듯이,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5 주년 총회는 참으로 가족 재회와 같은 자리였습니다.

이번 모임의 주요 행사 가운데 하나는 티보르 카우저(헝가리), 메리 스트로나크(미국), 스테판 아카트레이네이 신부(루마니아 및 이탈리아), 아나 마리아 라포 라오스(페루)가 참여한 국제 패널 토론이었습니다. 이분들의 나눔은 전 세계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삶과 성소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했으며, 미래를 향한 희망과 격려를 전해 주었습니다. 각자의 경험과 관점은 국제 형제회가 직면한 도전과 희망,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더욱 깊이 이해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특히 큰 감동을 주었던 것은 동료 재속프란치스칸인 아내 아그네스 카우세르(Agnes Kauser)와 함께 총회 전 일정을 소화한 총봉사자 티보르 카우세르의 증거였습니다. 그의 현존과 친근한 모습은 프란치스칸 삶의 핵심인 '섬기는 리더십'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아울러 미국 회원 최초로 재속프란치스코회 국제평의회(CIOFS) 회장단에 선출된 메리 스트로나흐는 국제 형제회를 위해 봉사하고 전 세계 프란치스칸의 유대를 강화해 온 자신의 경험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교황 레오 14 세의 사도적 축복을 전해준 주미 교황대사 가브리엘레 카차 대주교(이탈리아)의 참석으로 큰 축복을 누렸습니다. 카차 대주교의 따뜻함과 격려는 강론과 참가자들과의 만남 속에서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프란치스칸 카리스마와 삶의 방식에 대한 그의 깊은 애정은 참가자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과 감동을 남겼습니다.

해외 귀빈들의 참석은 이번 5 주년 총회가 준 수많은 축복 중 하나였습니다. 기도와 친교, 그리고 함께한 경험을 통해 그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큰 존재, 즉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하나 된 전 세계 프란치스칸 형제회의 일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함께 보낸 시간 동안 맺어진 이 소중한 인연들이 앞으로도 우리가 매일의 성소를 살아가는 데 있어 큰 힘과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